

동국대학교총여학생회

'97 새내기새로배움터자료집

세상을 감싸안은 여성



CONTENTS

총 여학생회

1997 새내기세로 배움터 자료집



표지그림은 96 신년호

special

2 좌담?토론? 수다?

8 인사

총여사람들

10 중앙공연

하나/ 영상물 미리보기

둘/ 정신대 할머니

사진전에 관하여

문화분석

14 총여만화분석 I

에스할름의 영주가 들은
별에서 온 이상한 소식-남
성해방대작전이 펼쳐져야
하는 곳이 노말시티라고

16 작가 INTERVIEW

불의 검을 만든 사람-김혜
린 만나기

18 총여만화분석 II

우리가 불의 검을 다시 읽
은 이유

20 여성주의 연극 광고

22 책세상(서평)

소개의 글

23 성정치위원회

소개의 글

24 성정치위원회 모집광고

25 성폭력신고센터 소개

및 성폭력신고센터

지킴이 모집 광고

여성단체소개

좌담? 토론? 수다!

장소: 총 여실에서

주제: 여자 선배가 여자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수다 떠는 사람들: 푸하, 달마,
줄마, 세발, 품이, 보리,
햇별 한중, 껌이, 팔공, 아롬.

우리가 수다를 떠는 이유

여학생들은 특히나 왜 우리 마음 터 놓을
선배가 없을까? 이런 해간 여자 선배랑 하
고 싶은데 왜 없지? 대학 생활에서 남는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거다. 이제 우
린 후배에게 수다로 풀지고 얘기한다.

1월 18일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장소: CLUB

예비 수다에 모인 사람들: 세발, 줄마, 예
리, 품이, 푸하, 보리, 햇별 한중.
이때 녹음을 해 놓지 못했다. 총여사람들
은 정신이 너무었다. 머리가 나쁜가보다.
예리(법학과'95 권정화, 교편에서 살고있음)
는 우리랑 수다떨기로 해놓고 도망갔다.
교편 학습MT를 갔다고 하더군. 땅을 치
고 통곡하는 척 했지만 그건 거짓이리라.
우린 도대체 여자 선배와 여자 후배와의
관계는 왜 지속적이지 못할까? 고등학교

때의 선배와 대학에서의 선배의 다
른 점은 뭘까? 그리고 술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주제로 본
격 수다에 앞서 우리의 두뇌와 입
의 운동을 도왔다. 후배여 수다 떨
러 오거라!

1월 20일 수다떨기 시작에
앞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을 만들
었다.

세발, 푸하, 달마, 보리, 줄마-이러한 이
름짓기를 어릴적(?)에 배워 많이 써
먹으려 함.

품이(화학과'95, 태어날때 이름 심
아영): 신전하다.새롭하다.달콤시름.
전국에는 품이에서 "품이"가 됨.

햇별 한중(인문학부'96, 태어날때
이름 최아란): 반짝반짝이라는 연
상에 의해 본인과는 무관한 이름이
탄생됨.

팔공(공학계열'96, 태어날때 이름
오혜영): 코가 빨간 오혜. 팔기광주
리, 팔기공주. 그러다가 정말 팔기공
주가 되어버렸다.

아롬(회계학부'97, 태어날때 이름
김명주): 개구리, 개구리밥, 죽음의 신
마후론, 왕눈이, 아롬이... 결국 아롬이
가 됐다.

껌이(한국어문학부'97, 태어날때
이름 박정은): 껌이, 통곡, 돌담길, 담
쟁이 덩굴, 손가락... 뭐 이런 것들 안
에서 정은이가 껌이를 골랐다.

점시기 10개가 빠지면 100개가 빠
지든 수다를 떨어보자!

세발: 그럼 우리 여기서 본격적으

로 뭘 해야 되는 건데?

푸하: 여기서 새내기과 대학 생활을 각각
1년, 2년, 3년 지낸 사람들이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함께 여자 선배가 자신들이 지내 온 과거
를 얘기해 주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햇별 한중: 난 중고등학교 때 친구나 언
니, 후배들과 모두 친구처럼 지냈기 때
문에 친구가 더 느는 것 같고.

달공: 우리 학교가 동아리가 잘 되었었거
든요. 후배도 동생 같고, 동생도 후배 같
고.

약간의 침묵

달마: 나는 3학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입학했을 때 팔팔한 새내
기였다. 지금도 어련에 같다는 예길 듣는
데 근데 직접 보니까 정말 어리다.

세발: 내가 아까 새내기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새내기들한테 4학년이라고 소개하는데
웬 답살! 정말 이상하더라고. 4학년이라는
게...

푸하: 이런 새내기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
니고 나이 들면서 신세 한탄

줄마: 여기서 구체적인 얘길 했으면 해.
경험이나 실화로 얘들이 알아듣기 쉽게

점시기 여기서 신입생들의 시생활을 듣는 시
간을 가진다. 그후 남녀 공학에서 체육복
같이입는 이야기 진행 그리고 씨름활동에
기.

줄마: 씨름활동도 했어?

껌이: 예, 그런데 고등학교때 씨름 활동이
라는 게 그렇잖아요

줄마: 그럼 대학 와서 동아리 같은 거 할
생각 있어?

껌이: 예.

모두: 오~

세발: 근데 요즘 신입생들이 동아리 안 드
는 추세 아니냐?

껌이: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동아리 활동
을 안하고 연애만 한다던데 그래서 너 동
아리 들려는 거구나?

달마: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랬던 것 같아 남자가 많아야 한다.

푸하: 해태로 원단이야 정말

줄마: 잠깐 중간 체크 여기서 동아리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손을 든다.]

줄마: 좀 서로 밝히도록 하자 거기 1학년
부터, 아니 아니 96들

96임중: 아직 1학년이예요!

햇별 한중: 난 1학년때 바쁘게 지냈어요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 대한 그런 거 많잖아요 나도 여고
를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고 난 공부를
해야지. 신문이나 뉴스 이상의 것들을 말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교지 편집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
고 1학년 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이것 저것 많이 하느라 바빴어요.

달공: 공학 계열이 정원이 430명이라 아
는 사람은 30-40명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
래서 OT 때 선배들을 따라서 동아리 들어
가고 셋바람이라는 여성 문제 연구회여
요. 1년 동안은 거기서 살았어요 남자 예들
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
는 내용, 자료집으로 보여줄 수 없어죄송.
하여튼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배운 한해였던 것 같아요.

보리: 그런데 지방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같은데

영무새 소리: 맞아!

햇별 한중: 근데 어떻게 여기 모인 96이
모두 학부 계열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
부 동아리 얘기만 하고, 나도 당사자지만
우린 딱하다. 그래서 97은 사람들 잘 모르
는 괴로움 겪지 않았으면 해

품이: 저는 요 특별한 활동 안하고 과에
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들하고 정이 들었
고 저희는 아직 과라 서 과에서도 아직 막
내거든요 과에서 이런 저런 일 하며 살았
어요

달마: 저도 화학과거든요 저는 동아리에
정착을 했었고 또 2학년때 총여에서 활
동을 했구요 총여에 들어와서 여성 문제
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에 제 꿈은 현
모 양처였고 남자랑은 손도 잡지선 안된다.

손잡은 사람하고는 결혼해야 된다는
어렸을 때 말을 기억하면서 그
렇게 살았거든요. 총여에 와서 말
이 깨졌어요

보리: 저는 공대거든요 들어왔는데
입학할 때부터 선배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들어왔는데 남학생
이 워낙 많다 보니, 그나마 문과
적 성향이 강한 공대거든요. 그래
서 적어도 개과(여기서 개과란 기
계공학과를 말함)

모두들 서로 이상한 분위기 였다면
어떤 이의 남자 친구였 또 어떤 이
의 선배가 기공이래 때문 다시 이
어서

보리: 이랬거나 들어올 때부터 등
치큰 남학생들에게 물어서 OT를
갔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너무나
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
들을 좇아서 '빛물이'라는 사회과학
학술 학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
년동안 밤에 거의 12시에 들어가
는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빛물이
랑 총여언니들 덕분에 많은걸 배웠
고 사회문제들을 배워 가면서도 여
전하 풀리지 않았던 여성 문제를
여기 -있는 사람들과 풀려고 해요.
세발: 근데 난 좀 길어

역시 오래 산 사람은 다르다니까

세발: 제가 수능 일세대 같아요 정
신없이 지내다 복수 지원해서 원서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대학가서
뭘해야 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선배
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만나는게
즐거웠고 그 당시에는 높은 학번
선배들과 나랑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고 신선했어요
하루도 집에 있던 날이 없었어요.

셋바람: 영자 신문사등 이것저것
많이 하며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
상 남기는 것이 재산을 쌓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한학기 지나고 나
니까 많이 지쳐더라고요 왜 사람
만나는 폭이 넓으면 깊이가 없잖아
요 그래서 많이 정리하느라 한학
기가 지났어요 그러면서 많은걸
포기해야 했고 얻는 만큼 선택하는
것만큼. 그래도 1학년때 이것저것
많이 저절렸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으로 평가를 판단한다는 게...그래

도 1학년때 용서가 되는 학번이잖아. 그리
고 항상 총여 선배들과는 연관이 많았었
는데 진정으로 여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한건 얼마 안됐요. 저도 여러분처럼 1학년
때는 선배 언니 따라서 셋바람 들어갔는데
남자 아홉에 저 하나다 보니 어떻게 문제
여성 연구회라는 말까지 듣게 됐어요. 댜
날 술먹으며 잘 연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머릿속에 든 생각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금계만
보이던 드라마도 비판 적인 시각을 갖게
됐어요.

푸하: 나도 1학년때 이것저것 일을 많이
저절렸지. 술자리 잘 때마다 선배들이 이
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말이 많더라고요. 난
처음부터 과에 기반을 두어야겠다고 생각
했고 계속 내 고민은 사회에 대한 물음과
해결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고 총여 여름학
교에 갔고 거기서 또다른 분노를 느꼈고
그리고 총여 장이 되었지. 나의 life story 는
끝이 없지만 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줄마: 지금 얘기가 대학 생활 전반의 얘기
였던 것 같고 또 1학년 때 많이 저절리
봐라.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하
나씩 풀어 보도록 해요. 드라마 같은 데
서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술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하얀길 같은 분위기의 술집에서.
그런 문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통금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짐
에 늦게 들어가도 되는 사람은
누군가 손을 번쩍 들다.

Dec
97
22

줄마 몇 명 안될 거예요(?) 그런 얘기들부터 하는 게 어때?

보리 잠깐 꿈이 에게 질문 있어요. 여대에서는 술을 먹는다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얘기랑 남녀 공학에서의 술자리에는 차이가 있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꿈이 전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부감은 없는데 그래도 1학년때 내숭을 다 떨잖아요

분위기 정도 안됨. 너도나도 꿈이 에게 현미디

꿈이 여대에서는 술을 딱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가자기하고, 그런데 남녀공학에서는 선배들이 후배 죽이기 해서 딱 권하잖아요. 그래서 맛 보내고 확실하게 여대보다 남녀공학에서 술마시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자리 분위기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잘되면 사람들하고 정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직 술 마구 권하는 건 그렇지 않...
줄마 선배들하고 술마시면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선배들하고 술자리 가면 맛있는 안주시켜 줄 테니 항상 옆에 앉으라고 그러는게 있어서 동기들끼리 가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의 불쌍한 96 학부 재의 학생 양들 선배하고의 술자리가 별로 없던 이들은 이해 부족과 부러움에 뒤섞여 한마디씩. 우리 선배가 없어 선배랑 술마셔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너무나 치절하여 도저히 말로 할 수는 없음. 그리고 이들은 술자리에서의 나쁜 일들을 겪어 보지 못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줄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선배들하고의 술자리에서 안 좋은 게 있었다와 햇빛 한줌처럼 그런 술자리라도 가져왔으면 좋겠다 나 모두 '술자리'에서 일어난 거잖아. 여기서 우리 술자리에서 안 좋았던 점 생각해 보자. 특히 일단 여학생들의 경우는 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

아름 그런데 여기서 여학생들만 거부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발 아니 이젠 우선 경험의 문제잖아. 요즘은 덜하지만 여학생들에게 술먹는 기회가 더 적은 게 사실이고 또, 술이라는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적 부담이 커서 술에 안 취하려고, 술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별짓을 다하잖아.

주하 난 좀 특이한 경우였거든. 과에서는 집에 안들어가면 혼장 다는 거야. 보통여학생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 내 생각에는 외박을 통해 남성의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

줄마 그게 노망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술마신 다음 날이면 언제나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달마 저도 저희 동아리에서 유일하게 적응한 경우로 그래서 남은 거죠.

햇빛 한줌 우리 인문학부는 남자, 여자로 나뉘기 보다는 집에 가느냐 안가느냐로 나뉘어요.

줄마 난 좀 다른 얘길 하고 싶은데. 친밀감을 형성하는 건 주로 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술 때문에 많은 이들이 떨어져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봐.

햇빛 한줌 술은 항상 매개가 되잖아요. 그럼 부정적 시각의 술 문화에서 남성이고 선배일 때 가장 극대화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술자리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줄마 오- 취조 하는 거야? 이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하여 서로 마구 이야기 + 웃음 그리고 또 어찌의 술 얘기

햇빛 한줌 그러니까 어떤 편 술자리가 화기애애하고 어떤 편 가족적으로 돌아간다면...

줄마 별명하다거나, 뭐 켄다거나, 자거나, 울거나...

세발 물론 척박아 두고 술마시지 뭐.

줄마 내 얘길 건넨까진 아니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술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싫은 술자리 언제든 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굉장히 알뜰한 거지만.

보리 우리 성공담을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세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 술자리에서 억압을 얘기 하면 분위기 망치는 꼴밖엔 안 되잖아.

줄마 난 나 혼자 있어서 그런 분위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발 남자가 많고 마구 술마시는 분위기가 나처럼 사법대라도 많이 있게되요. 여자 후배라서 술을 따라야 하는 경우.

햇빛 한줌 우린 못 따르게 됐는데.

세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야. 여자 후배라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거나, 특정한 남자 이외의 남자에게 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나...

보리 그러구 저도 동아리에서의 술자리 좀 틀렸어요. 학번차 많이 안 나는 선배나 동기, 후배와의 술자리는 그래도 동등하거든요.

세발 나이차에 의한 것들은 계속 발생해. 이게 학교내에서만 일어 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해져.

햇빛 한줌 그러면 우리의 패배담을 들었으니 이제 한 마디씩 자신이 바라는 술자리에 대해서 말해보요. 애들아. 장담하건대 앞으로 술자리는 엄청 많을거야.

고덕 고덕

줄마 그럼 나부터. 한 마디로 썬지 NO -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술자리.

보리 술자리를 빌미로 나타나는 스킨쉽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햇빛 한줌 진짜 연구 대상이야. 대체 어느 과유?

세발 이젠 어느 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나이 차이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햇빛 한줌 그럼 NO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세발 거기선 주목이 되고 싫다는 표현을 분위기 안 망치게 유하게 하면 남자들은 아닌 줄 안다니까.

보리 그리고 음담패설 없는 술자리. 그건 우리도 허잖아!

보리 그게 그런 이상한 상황에선 지식이 똥속에 어떻게 대처가 안되요.

세발·줄마 그럼, 우린 지식이 풍부하냐?

세발 그래서 신입생을 위한 성공교육 교양을 해야 한다니까.

꿈이 우리과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비등비등 해요. 남자들이 순진한 애들 찾아다니며 그런얘길 하는데, 동기는 그래

도 제동을 가할 수 있는데, 선배들 얘기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 대처가 안되고 참-

줄마 결론은 성공교육 받아보자야?

달마 지회는 강요된 술자리가 없었거든요.

햇빛 한줌 계열이니까 그렇지.

줄마 음- 이제 알았어. 과와는 달리 학부제가 되니까 술자리에서의 강요는 없어졌네. 그다음

햇빛 한줌 음담패설하고 마시고 싶지 않을 때 안 마셔도 되는 것. 그리고 술자리의 소재로 여야 영수 회담같은 얘길 쓰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

세발 취중 진담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건지 술기운 밟아 한다는 그 자체 후배들간 상태에서 진담을 들어보자는 식 말야.

줄마 그럼 얘기 거의 다 했으니 오늘은 그만 하고 다음에는 술마시면서 하는게 어때요?

아름·꺼이 정말요?

● **우린 이날 장장 3시간의 수다를 떨고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다음에 수다떨 꿈에 부풀어!



1월 22일 CLUB에서 먼저 밥먹고 얘기 함시다. 식사중- 물론

술도 시켰음!
모두 고개를 갇춘다. because 사진기 등장 함 시간 25시 분위기 안돼 우리 수다 떠는 척 하자!

히하-

햇빛 한줌 사진 찍는 걸 꽤 싫어할까?

세발 나중에 실체가 그려 나잖아. 무리 술먹고 드림하다. 새내기들이 어찌 뽀를 다 먹지 않은 관계로 김소리 계속됨.

세발 너희 전에 얘기 하고나서 더 알고 싶은 거 없어?

아름 그때 동아리 들려고 했는데, 언니들 말 들어 보니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생각중 해 봐야 겠어요. 술마시는 건 싫은데 사람들하고 친해 지고 싶은데...

세발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 강요된 술자리가 싫으면 그만둬도 돼.

햇빛 한줌 동아리 하면 좋은게 사람을 폭넓게 사귄 수가 있잖아. 공간이랑도 참 중요하지. 동아리원해서 가는 거잖아?

꺼이 동아리 나중에 들수는 없는 거죠?

세발 아니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 수 있어.

햇빛 한줌 모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 일요일에도 나오

자료집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모두 궁금한 한마디씩.
한 마디로 자료집 나오면 땀!

아름 (햇빛 한줌을 가리키며) 근데 언니 96 맞아요?

햇빛 한줌 무슨 뜻이야? 나도 이제야 완숙미를 더하는구나.

그리고 역간의 여수선원과 햇빛한줌의 주옥같은 세상공부에 대한 이야기

주하 전에 우리 집국끼리 얘기할 때 고등학교 때 선후배 관계에 대해 얘기했었거든. 우리 그런 얘길 해보자. 너희는 어때?

꺼이 저런 씨름해봤는데요. 선후배 사이는 항상그랬고,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킨쉽 같은 건 없었어요.

주하 자주 오해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디다.

햇빛 한줌 우린 자매반이 있었어요.

주하 자매님 하나까 뭐 생각나지 않나?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세발 난 씨름을 했는데도 별로 그런거 없었어.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모든지 연례행사 같은 거였고, 문화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야.

주하 나 여기서 물어볼 것 있어요. 난 고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에서 동성애 같은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꺼이 저희는 남녀공학이라 없었는데 옆의 여고에서 키스하다 걸려 정학당하는 경우 봤어요.

햇빛 한줌 그때 여고에서 그러는 게 나오

DE
97
22

고 싶으면, 또 집에 일찍가도 엄마가 반기지 않는다. 그러면 동아리 들어.

선물 공세 받아봤는데, 하연은 그런게 있어. 근데 사실 그때는 호기심도 있지않을까 해.

끼이 그건 그냥 동경이 아닐까요?

햇빛 한중 그건 말야. 남자애들 축구 하고 영키는 것도 어떤의미에선 애정이라고도 봐. 그게 남성과 남성간이나, 여성과 남성간이나, 여성과 여성간이나에 따라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갖다 붙이는 것 같아.

끼이 근데 우정과 사랑은 느낌부터가 다르잖아요?

햇빛 한중 사랑하고 우정이 다른게 뭔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서 어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해.

햇빛 한중 화제를 잠시 바꿔서 말안하고 있던 점이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 얘기좀 해보지.

폼이 난 담배를 워낙 싫어해서... 여자가 핀다고 규정짓는 것도 싫고, 미팅이나 그런데 나가서 남자들이 담배 피세요 하고 권하는 것도 싫어요.

세발 그거 실험해 보는 거잖아.

폼이 어쨌든 남자들은 담배 피우라고 주면서도 뒤에서 욕을 하지. 그런 남자들이 우습고.

(그러면서 왜냐?)

아이없어하는 우리의 수다꾼들

그리고 이어서 OT에서의 여자기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여회? 시작

폼이 이런걸 보고 남자들은 어디 여자가 맛담배를 피우고 하더라고.

푸하 그런데 원래 우리 학회실에서 담배 피는거 안된다고 들었는데 남자들은 거기서 담배 피더라고.

햇빛 한중 그건 아니지 -

보리 남자애들이 선행랑 같이 피운다고 맛담배 핀다는 얘긴 안해.

신입생들에게 갑자기 화살을 둘러

세발 나도 고등학교 땐 여자 담배피우는 거 욕했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아름 전 담배 향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나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끼이 전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는게 별로 안 좋아보이더라고. 당당히 피지 못하고 숨어서 핀다는게 담배 피우는 거 그 자체 보다는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차라리 안 피는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리 전 두가지를 얘기 하고 싶은데 우리 나라에선 여자가 지붕 없는데서 담배 피면 경범죄란 말도 있대요.

우리 수다꾼들의 열변은 소리

보리 그러구 여자가 임신 중에만 안 피면 태아한테는 영향안 간대요. 전에 미국에서 여성 금연법 통과시킨 것도 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안 핀다는 식으로 그런 이데올로기를 유포 시킨다는 거죠.

달마 그게 정말 우스운게 담배가 그만큼 나쁘다면 남자 담배피우는 건 정자에 영향안가나. 또 그럴 우리나라 처럼 환경오염 심한데 있는 여성은 전부 기영아만 낳는다는 소리야. 그런걸 문제 삼지 않고 여성 금연 논 한다는게 우스워.

세발 의학적으로 임신 기간에 금연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이를 낳아야하는 기간을 위해 여자들만 금연을 해야한다는 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식밖에 되지않아. 남자는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담배를 핀다고 하는데, 여자 담배피우는 건 간접흡연이 더 높은 폐암발생율을 낳는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나 임신부 앞에서 마구 피잖아.

이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이에게로 모두 눈을 옮기고 있다.

햇빛 한중 아름인 저 언니 담배 피우는 거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어? ①어머 저 언니 담배 피는거 건강에 나쁘잖아(모두 웃음) ②언니 무서워 - 어떡해

끼이 당연히 2번이죠. 우리사회의

문화가 원래 그런거잖아요.

햇빛 한중 원래 그런건 없단니까.

이어서 세발(4년 1남중 커닝이 본 넷째 딸)등 호구 조사.

남근 중심의 가족 구조에 대한 불안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이야기로 넘어감.

끼이 전 오빠 하나에 전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성적 때문에 차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딸이랑은 아버지와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거죠.

햇빛 한중 이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내 아들을 개관으로 키우고 있는거야. 그림에 할아버지가 난초인지 뭔지를 애지중지하는데 어느날 이 꼬마가 보행기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나하나 땀땀. 그거 할머니가 그랬어봐 난리 나지.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와서 손수, 천히 화분을 돌려 놓는다는 거야. 글쎄, 참 어떻게 자랄지 걱정이 되지.

모두 동조

끼이 아까 그 아들 애길 하자면요 요즘은 변해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애들이 적어요.

세발 그게 더 무서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엔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자가 라고 욕하는 남자보다 난 차별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여자들 더 싫어. 왜냐면 그런 여자는 자신의 시각을 갖지 못했다는 거지.

달마 난 엄영관이 쓴 책에서 남편의 바람기 난 이렇게 참고 견뎌왔는데, 이런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대해 우린 여성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푸하 난 그런 여성적 시각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거라는 생각은 안들어. 엄마는 말 아들 차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난 사소한일 하나하나가 차별인거야.

끼이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문제는 엄마 같아요.

세발 이런 경우 엄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도 차별을 받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게 된거지.

폼이 우리 집은 딸들이 하도 난리 쳐서 남동생 많이 고쳐치게 했지. 근데 나도 전에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생각 했는데, 언제 한 번 지하철에서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는 왜 이렇게 하등할 수밖에 없는가 식으로 얘기 하는거에 너무 황당

해서...

세발 그 얘가 뭔데?

폼이 그애들이 온갖 유식한 책을 하며 이런 저런 애길 하는데 (홍분한 폼이). 애들이 이러는데 나이든 기성세대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성의 적은 역시 남자구나 했지.

세발 난 고학번 선행을 하고 세미나 많이 했는데, 참 대단한 선행들이다.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존경했거든. 근데 89 학번 선행 하나가 자기는 요즘도 여자끼리 술 마시는 거 보면 추하대. 난 친구들하고 많이 그러는데, 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남자일 수밖에 없구나.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문제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결혼-에 대하여 꼬뒀기며 연평

끼이 결혼같은건 자기 신념 아니예요? 그리고 회사 파업 같은 경우에 외국은 자기 일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고 파업하는데 우리 나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자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햇빛 한중 맞아요. 선택의 문제(제도권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거예요.

머리회전 하느라 고생하는 우리-두시간 11분

수다꾼의 우리들의 든든한 체력-

이때 우리 신입생들의 질문 시작.

끼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 고민은 공간이 다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궁금해요.

우리들은 각자 선행으로서 하나씩 자신의 생각, 경험들을 얘기해 주었다.

결론 옛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감이 붙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간의 차이는 큰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되는 지점은 있다.

이때 세발 남자에게 여캐워 권하지 않던 술을 아줌에게 나눠준다.

햇빛 한중 우리에선 원래란 없다! 받아만 봐.

아까와 하는 세발

아름 전 고등학교 때 선행이라는 생각 드는 선행이 있었어요(그럼 우리는 뭐지???) 그래서 동아리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많이 사귀고 싶었거든요. 근데 술 땀에...

모두 광분하며 침뿜기는 얘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공부만 하는 1학년이었던 괴로의 생각. 그리고, 1학년이 아니어서 괴로



운 우리(대학생의 특권이 점점 사라져 가는...) 아! 옛날이야.

이때 또 공포의 사진기.

끼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선행을 만났었거든요. 그 선행랑 여기 선행님 둘이랑 공부에 있어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부랑 자신의 활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햇빛 한중 자신의 일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해보면 알아. 겪어봐. 이게 정답이다.

결국 좋은 얘기 끝에 술잔을 부딪치며 마무리

한-(술잔 부딪치는 소리)

주옥같은 수다를 함께 준비한 예리양과 우리의 귀여운 새내기 아름과 끼이의 멋진 대학생생활을 기대한다. 또, 세발, 폼이, 햇빛 한중, 달마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새내기 여러분 아직도 더 할 얘기가 있다면 주저마시고 주위 선행에게 술사달라고 조르세요. (술권하는 밝은 사회!)

우리의 유익한 수다를 마치며.....

방학 내내 우리 총여 사람들은 새내기들에게 깊이 깊이 전해질 자료 집을 선사하기 위해 엄청난 기획회의와 예비 수다꾼들과의 만만치 않은 준비기간을 가졌다. 장소 선정과 여타의 것들(녹음기, 사진기, 술, money...)에도 많은 논의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 엄청난 수다를 정리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려 수면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고, 20page 분량의 수다(꽤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웃느라 내는 소리였음)를 6page로 줄이잖나 눈물을 머금고 편집장의 권한을 동원하여 마구 삭제 하였다.

De
97
22

인사-총여 사람들

여러분



총여학생회장:

절대 권위적이지 않지만 화나면 무서운 우리 총여 썬님은요, 일명 터프기이라고도 불림. 웃는게 웃 거서 별명도 "푸하"라고 함. 손가락이랑 다리가 짧은 것만 빼면 미모에도 손색이 없음. 만약 어떤 사람을 봤는데 손가락이 5cm 정도다!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총여학생회장님?" 이런 말을 걸어도 무방할 것임.

인사: 반갑습니다. 식사하긴 하지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봅시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면 노여워 하십시오. 그리고 총여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 하면 열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나는 대학생활을 함께 하십시오. 뽀.

부총여학생회장:

동국대학교의 밥을 3년째 먹고사는 구내기. 맨날 어린척하지만 실제로는 좀 노친네임. 자료집 어딘가에 Catalyst 라는 전공용어(화학과학)를 써놓을 정도로 학과 공부에 충실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또한 전공과 조금 무관하게 살아감. 얼마전 애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간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임. 그래도 인사는 하겠다고하니 들어나 봅시다.

인사: 우와! 97 이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들이 눈썹바로 뜨고 쳐다보지도 못할만큼(?) 높은 지위를 거머쥐고 있는 아주 무뎌운 씨람이구요. 이름은 썩썩한 미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저 보시면 '헉' 하고 숨이 막혀야한다는 말이죠 하하

새로운 삶! 무엇이든 도전하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편집국장:

자기는 작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다고 우기지만 내 보기엔 엄청 재밌음. 공대에서의 적나라한 성차별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종종 우리를 분노케 함. 조그만 체구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버티고 계신 편집장님께 박수를 보내야 함. 말뚝 노릇을 톡톡히 하는 착한 딸...인 것처럼 보임.

인사: 앙-앙 난 나이 먹기싫어! 안녕하세요 전 보리예요 어디서든 팡팡 뛰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사무국장:

조용조용한 말투로 사람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속~하게 만드는게 특기임. 안 넘어가려면 두눈 똑바로 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머리를 설사어 없이 움직이면서 들어야 함. 총여에서 유일하게 연인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여친네임. 잠이 많음.

인사: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새내기들-에게 서면으로 인사하다니... 난생 처음이군요 (왕 흥분된다!)

발발거리고 동악을 돌아다니십시오. 가능하다면 학교밖도 켜잡겠군요 많이 웃고, 먹고, 떠돌고, 분노하고, 울고, 화내고...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항상 자신의 삶을, 과거를 돌이켜보고 (남들은 성찰한다거나, 분석한다고도 하던데) 중요한건 잘 사는겁니다.

증앙 공연

하나!

영상물 미리보기

0)들어갑니다

동국대학교 제 12대 총여학생회가 97년 부분, 부분 꿈을 안고 동악의 아침을 약속하신 새내기 여러분께 선보일 「신입생 OT 영상물」은 "총여학생회"가 여성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유일한 동악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새내기 여러분께 작게나마 깨어남의 기회를 드리고,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 총여학생회의 고민을 모아 제작한 20여분 짜리 영상물입니다.

여성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나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한번 구경해보지 않으시렵니까?

1)영상물의 구성

* 영상물은 크게 3가지 주제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과 끝에 자막으로 올라가는 맨트와 동악의 남학우와 여학우들의 인터뷰, 그리고 영화와 CF 광고의 컷 장면들. 이렇게 3term으로 나뉘고 이것들을 모아보면 20분 정도의 관람시간이 되겠네요.

장면 1 들어가는 맨트

Opening 조혜정 「글읽기와 살읽기」 중에서

장면 2 광고

여성의 상품화를 겁없이 내뽐는 광고와 가위로 재단당한 여성성을 강요받는 사회에 만연한 풍조를 증명하는 광고등 가장 흔한(?) 광고를 컷트해 내보내면서 새내기들의 의식을 쪼개려야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집어넣은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는 성각본을 얼마나 무의식·무감각적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한번 쫓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면 3 인터뷰

동악 곳곳에서 모여앉아 수다를 즐기고있는 학우들이나 길 가다가 운 좋게도 97 새내기들을 만날 기회를 포착한 학우들이 그들의 유식함·내지는 무식함·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주로 기본적인 그들의 의식을 묻는 질문들인데, 확실히 '여학우들과 남학우들이 느끼는 이 세상은 참으로 다르구나'라는 것이 팍팍!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남성들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새내기들이 포착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했다가 한번쯤 동악을 헤메어 찾아보는 것도 참! 재밌겠네요.

장면 4 영화

우리네가-총여학생회 씨사람들-영화를 보면 거의 모든 영화에 여성성을 재단해내고 상품화시키는 장면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음이 흔히 들여다보임니

다. (굳이 찾으려하지 않고, 제발 없기를 바라지만 남근중심주의의 칼날은 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이것들을 포착하기에는 너무나도 상품화된 사회, 물질화된 사회에 길들여지고, 깨어날 그 어떤 제안도 받지 못한 새내기들에게는 가슴에서 느껴질 만한 대사와 장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묶여있는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는 Catalyst("촉매"라는 뜻 이랍니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비극을 함께 맞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장면 5 인터뷰

무작위가 아닌 좌위적인 인터뷰입니다. 지나가는 학우들이 아니라 역대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나 사회과학 및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면 1-4를 거쳐오면서 생겨나던 문제의식이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맘으로 넣었는데 조금은 말들이 다들 어려워서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정리]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性に 대한 고민이 단, 20분만에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장면 6 여성단체방문 및 인터뷰

한국 성폭력상담소, 정신대문제 협의회, 또하나의 문화, 단위노조 여성분과 등을 방문해서 이들이 하고자하는 일들을 들어보고 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노리는 것! 왜 성폭력상담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왜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지, 단위노조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은 왜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지 못하는지, 정신대문제는 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나고있지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장면 7 나오는 맨트 Closing

2)나옵니다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이 글을 읽는 새내기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바뀌어야 하는데 끈질기게도 안떨어지는 성차별은 어떠한 명확한 대안도 없이 한 세기를 또 한번 넘기려고 합니다.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겨우 일백년입니다. 뿌리깊은 성차별문제가 지금에 와서 여성상위라는 이름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여성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이며, 남성이자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스스로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당한 성차별·성억압을 눈으로 보고 느껴셨다면 그 다음은 새내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눈 한번 딱 감자? 아니면' '나로부터의 탈주를 시작하자!'



중앙 공연

돌!

여성, 그 참담함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에 관하여-



인간의 전 역사를 거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 여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응에 관계없이 전쟁이라는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암묵적인 인정들 속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당하고 인권마저도 유린 당하는, 여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다.

-전쟁은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장 증폭된 장이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집회를 여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은 증언자가 나타나면서 언론,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 할머니들의 한맺힌 사연들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린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통해 우리 여성의 암울한 삶을 되짚어 보려고 한다.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

1991년 처음으로 위안부 할머니가 증언을 하면서 차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내막이 드러나고 정대협(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을 통해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에 공식적 사과와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간의 이리저리한 정치적 협상들이 있어왔다.

위안부 이야기 어떻게 우리와 가까워 졌나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가 일반극장에서 상영되

었다. 영화<낮은 목소리>는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던 한국인 할머니들의 현재적 삶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강요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기록영화 이다. 변영주 감독의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은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1993년 7월에 설립된 문화영화사이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그림

나눔의 집은 불교 단체 후원으로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곳이다. 할머니들은 그곳에서 이경신씨에게 미술 지도를 받아 젊은 시절의 꿈과 그 꿈을 앗아간 충격 사이를 헤매는 고통의 기록이며, 우리가 망각해 가는 역사를 되살리는 각성제이자 할머니들의 솔직한 자기 고백인 것이다.

그래서 제 12 대 총여에서는 O.T. 사업의 하나로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과 할머니들의 그림엽서와 보임 예쁜 뱃지를 판매 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런 짧은 기간의 사업을 통해 그분들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 <낮은 목소리>를 보고난 많은 여성들의 눈물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삶.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특정 문화나 민족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의 공통과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김순애 작 (꽃피는)



▲ 김순애 작 (백강자랑 치밀하리 - 뽕밭을 뒤돌아)



▲ 김순애 작 (어린 시절)

에스 할름의 영주가 들은 별에서 온 이상한 소식 -남성해방 대작전이 펼쳐져야 하는 곳이 노 말시티라고

1. 연애편 읽기

변함없는 진리???

윙크와 화이트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처음 잡은 것은 연애편이다. 작품의 중심 주제가 대부분 '사랑'이라는 것에 착목, 사랑의 형태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남자 주인공의 경우가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형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만화 속에 나오는 연애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겠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것은 선호하는 남성형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여자를 음으로 양으로 보호해 주는 남자라는 것이다.

특징들

특이한 상황은 그 이전 만화와 특별히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닌 듯 하지만 이전에 상대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중심적인 조건이었던데 반해 요즘 나타나는 양상은 남성의 풍족한 경제력의 경우 기본적인 조건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반면 외

모에 대한 면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듯 하다. 주인공인 남자는 언제나 잘생기고 잘빠진 남자인 것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전형적인 성적 특징에서 얼마간 탈피한 모습을 보인다.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와 같이 여성적이고 터프한 이미지를 고수하는 남자 주인공도 있지만 요즘 추세는 부드럽고 깨끗한 이미지 혹은 개성적인 이미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착한 전형적 여성보다는 다양한 성격들이 나타난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해피엔딩이라는 점이다. 어쩌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랑이 이루어 지는 것이 이야기의 끝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단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애정관계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곳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천애라든가 illusion, 뭐 그런 종류의...) 비극성의 상실이라 할까. 대부분의 만화가 남녀 관계에 있어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한두살 정도 위라는 정형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나 이 제한이 그리 고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동갑들끼리 사귀는 경우가 많고 연하 성향도 간간히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들은 Why happen?

만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들은 이 만화의 주 독자층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호 남성의 외모 중시 경향은 그만큼 그 전보다 경제력에 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각적인 문화가 만화에서 역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잘생긴 남자, 잘빠진 남자는 어딜 가나 선풍의 대상이다. 예쁜 여자가 남성들 사이에서 그러하듯이, 순정만화에서 예쁜 여자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일종의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아닐까 한다.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는 희망. 우리의 백마 탄 왕자는 잘 생긴 사람이라는 거다. 여기서 자신이 반드시 공주일 필요는 없다. 물론 공주병이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많은 순정만화 애독자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더라도 왕자가 나타나리라 믿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쯤되면 순정만화가 그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소녀들에게 이성간의 멋진 사랑이라는 환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어진다.

신세대문화라고 하면 흔히 개성적이며 감각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마련이다. 인물 성격의 전형성에서 탈피해 나타나는 개성은 이러한 세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할 것이다. 비극성의 상실이나 연하성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성애?

요즘 순정만화에 동성애적 성향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작가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는 만화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남성 대상 만화에서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성향들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거의 여고에 다니는 머리 짧고 터프한 여자, 즉 흔히 남성들이 지니고 있을 법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고에 다닌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동성애자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 남성의 경우 우선 남자 인물들 자체가 여자와 별 차이가 없게 생긴데다 성격도 과히 남성답지 않다. (주. 여기서 남성다움이란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남성성을 말한다. 터프함, 과격함,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과묵한, 폭력적인 등등의.) 단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순정만화에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남자들간의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든 작가가 동성애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화를 보다 보면 '내가 호모나', '저 변태' 등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내뱉는 대사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그것은 작가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성향들 역시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이긴 하겠으나 역시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3. 성관계 장면에 관하여

요즘 들어 대담한 남녀 성관계 묘사가 자주 눈에 띈다. 이런 장면을 남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많은 만화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남성 대상 만화에서 성관계 장면은 거의 여성의 강간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은 여성을 거칠게 다루고 여성은 그런 남성의 행동을 수용함으로써 환상적인 쾌락을 얻는다. 마치 한편의 삼류 애로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한편 순정만화에서 성관계 장면은 그야말로 여성이 보기엔 환상적이다.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기반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여기서 남성은 폭력적이라기보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여성은 성에 있어 중심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만화 속에서의 장면을 보고 남성은 여성을 정복시키는 폭력적인 성관계를, 여성은 남성과 함께하는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성관계를 선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듯하다.



작가 INTERVIEW

불의검을 만든 사람 -김혜린 만나기

분석할 만화를 불의 검으로 정하고 작가를 만나기 위해 주소를 알아볼 때 까지만 해도 마냥 좋기만 했다. 만나러 갈 때 자기도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걱정이었다. 그러나 주소를 보고 나서 그런 걱정은 걱정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뷰를 진행해야 할 것 인지 그것이 더 걱정이었다. 김혜린씨의 집은 부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굳히지 않고 부산까지 찾아갔고 낮은 목소리(?)를 지닌 김혜린씨를 만날 수 있었다.



커리마커의 커리가 만들려는 '여성왕국'이란 어떤것인가요?

여성왕국이란건 모계사회, 여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라고 말하면 될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보진 않아요. 남자는 여자를 성을 차별하고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카라가 자라온 사회나 환경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모계로 내려오는 사회구조 같은 거예요.

각 인물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수하이나 커리같은 나쁜 사람한테까지도. 기능성을 둔다고 할까.

그 사람들도 만화 속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예요. 누구나 삶에는 이면이 있는 것이고 캐릭터를 만들때는 그 사람이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엑스트라라고 해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물론 내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 맞추려고 해요.

붉은빛 바리는 남성이잖아요. 그렇게 직업을 설정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리가 살던 시대나 그 북방 민족을 보면 좀 문란해요. 우리나라는 워낙 성적 억압이 많은 나라여서 잘 안그러는데 인류 사회를 보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예요. 직업을 특이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처음 구상할 때 바리는 최후종 인류였다고 생각해. 거지는 만들 수가 없어서 떠오른 게 배후부였어요. 바리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되지 못할 사람이예요. 말하자면 중생을 구도하려 남은 보살같은 사람이랄까. 그래서 열반시켰어요. (웃음. 바리가 얼마전 사망. 후-정리자)

커리와 소서노는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들 설명중 소서노나 카라나 그 부족의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 두가지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소서노는 자애의 어머니, 카라는 공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둘 다 각 부족에서 핵심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상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배어난 여성들이잖아요. 그 능력뿐 아니라 가치관까지 꽤 충실하고 감동하는지를 그리고 싶었어요. 둘 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향이나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옛날 배경이 대부분인데 현대물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누가 그러는데 내가 현대물을 그리면 캐릭터들이 간헐적인 느낌들이 든대요. 내 감수성의 토양이 현대가 아닌가봐요. 현대물을 그리면 우선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지만 정서의 토양이나 가치관의 발상의 토양이 별로 도시적이지

않은가봐요. 만화를 어떤 사상의 목적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만화 자체가 좋아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물을 그리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시어 했겠어요.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근데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떤 작품의 배경을 찾아볼때는 좀 잘해 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생활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요. 만화에 다 표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있는 거니까. 호기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기도 해요. 기마병이 나오면 엉덩이가 얼마나 아플까, 말뚝 냄새 나는 데에서 참고생이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죠. 불의 집에서 야장 장면 그럴때도 야장 분위기를 낼려고 노력 했어요. 관심을 갖다보니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게 되요.

여성들의 지능(아니 옆에서 보살피 주는 많은 아줌마들)기 눈에 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그려나가는지요?

아줌마들이라고 해서 방정맞지만 한건 아니예요. 아줌마들은 남 흉도 잘 보지만 나름대로 보살피 주는 면도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 내가 나이를 좀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 면들을 표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여성들의 긍정성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페미니즘 작가로 불리우는 거 같은데.

그쪽만 보면 그렇죠. 이렇다 저렇다 토달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나타내고 싶어서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나타내고 싶었어요. 심심풀이 양념으로 집어넣은 건 아니예요. 여성이 자신이 가지는 장점, 단점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라는게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월한 것도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는 좀 다른 것 뿐이죠.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억압적이라는게 문제죠.



만화 분석

Part 2

우리가 불의 검을 다시 읽은 이유

많은 만화들 속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다 보면 김해련 씨의 「불의 검」에서 드러나는 여성상이 다른 작품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의 검은 청동기를 사용하는 부족 아무르가 철기 사용 부족 카르마키의 침략으로 노예같은 삶을 살거나 사방에 흩어지게 됐지만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해 항전한다는 큰 줄거리 아래 뚜렷한 개성을 가진 여러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불의 검」에서 인물들은 확실히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의 검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주인공 아라와 가라한 아사의 사랑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주위의 인물 역시 단순하지가 않다. 아라를 강간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치 않는 수하이도 그저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배경 서술을 통해 독자가 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카르마키의 여신 카라 역시 단편적인 모습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주인공의 적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은 작가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라는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불의 검에는 작가의 여성에 대한 믿음이 두드러진다. 이를 단지 작가가 여성이라서라고 이야기 하진 말자. 거의 모든 순정만화 작가는 여성이지만 이런 분위기는 흔치 않다.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김해련씨는 흔히 페미니스트 작가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남자 주인공인 가라한 아사를 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짓는 것이



어렵게 된다. 아사는 그야말로 병상치 않은 완벽한 인물이다. 타고난 전사(戰士)이며 정의롭고 과묵하고 정확하고 죽도록 한 여자만을 사



철검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주목할 것은 가진 것 없는 이의, 그것도 밝히기 쉬운 여성의 끈질긴 생명력인 것이다. 이는 아라의 주위에 있는 여인네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카르마키의 병사들에게 강간 당하고 남편 잃고 야기까지 잃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살아나가고 있다. 이 여인네들은 아라가 적의 아이를 낳았을 때도 처음

랑하고 ... 가라한을 따라 다니는 수석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멋있는 남자에게 부여되는 것들이다. 너무나 완벽한 것은 「불의 검」에서는 오히려 어색하다. 가라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물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수하이가 아라의 부탁은 다 들어준단 건지 마라한이 사랑해서 안될 신너를 사랑하면서 가끔 실수를 한다던지하는 것들. 이에 비해 가라한의 인물 설정은 진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 여성들의 선행의 대상이 될만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하기 그지없는, 게다가 독보적이기까지 한 남성.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유독 가라한만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나타난 남성성은 전형적이고 보수적이다. 주인공 아라뿐 아니라 신너 소서노, 카르마키의 여신 카라까지 가라한에게만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은 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카르마키의 여신 카라는 매우 음탕하고 사악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로 어릴때부터 카르마키의 왕에게 강간을 당해왔음이 밝혀진다.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극명히 이유로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한 번 강간을 당하면 왕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왕녀와 어머니, 정숙하거나 음탕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 검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높다. 주인공 아라는 물론 가라한에 대한 사랑이 깊기는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철검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검을 아무르에게 전수한 것은 어찌 되었든 아라다. 아라가 단지

엔 적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았지만 나중엔 그 아이를 돌아가며 돌봐주기도 하는 자매애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소서노는 부족전체를 여성 특유의 따뜻함으로 감싸안으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물론 신너라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하다) 카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카라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의 검을 단순히 몇마디로 어떻게 저평가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을 나름대로의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초의 순정만화라 평하고 싶다.

제 12 대 총여학생회 출범식

3월! 동악을 강타할 여성주의 연극을 소개합니다

COIN LOCKER -너의 자궁을 노래하라



PROLOG

흔히들 여성 상위시대라고 말을 하며, "여자들 살기 좋아졌다"라고 경제 발전의 성과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자동 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가 보편화되었다고 해서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가? 아니, 그보다도 가사노동이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인정받는가? (남성들의 자기 편의주의를 위한, 말뿐인 가사노동의 신성화가 아닌!) 이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남근 중심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비롯한 여성하위 이데올로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STORY

12 대 총여학생회는 97년 12 대 총여학생회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면서 여성주의 연극을 기획했다. 새내기들 뿐만 아니라 20여 년 간 제도권 안에서 닫힌 교육을 받고 지극히 이성애 중심사회인 이 답답한 사회에 무난히 적응하고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 연극은 하나의 미친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어놓았던 이러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이유도 모르고 차별 받고 억압받아야 하는 똑같은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봄으로서 현실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러한 부당함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현실에서 규정한 '정상'이라는 범주를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왜 비정상이라는 구조 안으로 흡입됨과 동시에 이유 없는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단지 바기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제2의 성으로 하위지위가 결정되어 있는 '여성'이라는 것에 대하여.(생각해 보니 우리는 고민할 거리가 참으로 많다.)



MOVEMENT

이번 여성주의 연극에 대해 (왜 여성주의 연극이라 불리을까?) 소개해 보면, 이번 연극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의 문제>와 <여성 자신의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주제로 세우고 스토리 라인을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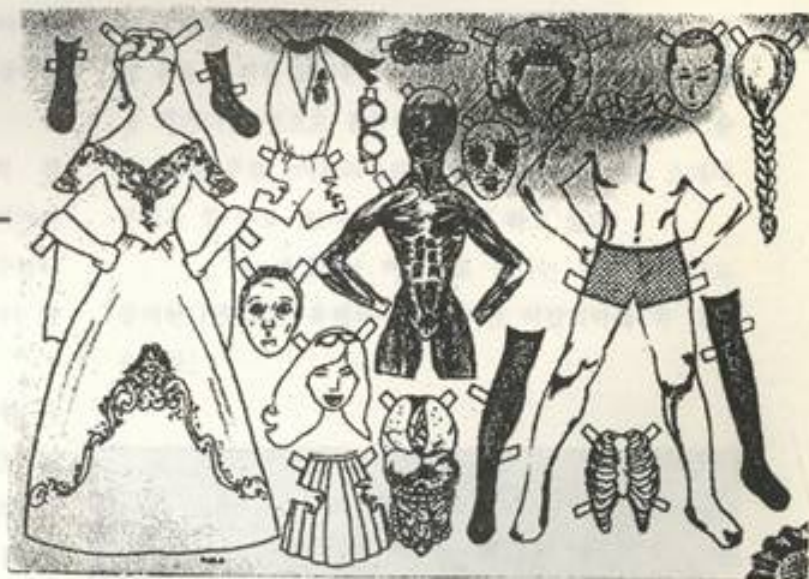
연극에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하지만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강간, 자살, 임신, 낙태, 레즈비언.....이에 못지 않은 대단한 인물설정에도 대해 잠깐 언급한다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부잣집 유복자이자 외아들, 과외 여선생, 과외 여선생의 애인(이성애자가 아님), 도덕주의자 친구,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또다른 친구, 대를 이어야만 하는 과부... 대강의 이야기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짜 맞추어도 연극의 각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서도 남근을 가진 남성에게 의한+바기나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성적 지위의 문제와 이 사건으로 임신이 되어버린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문제 등이 연극의 주요 가설거리이다.

END

이 연극을 체험 할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도덕주의자인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여성의 자기몸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인가?"



“죽 두”에 가자

채세사
7 0

서평

<나의 몸, 나의 길>

린다 레드레이/김수경 옮김/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최근 우리나라 성범죄의 증가율은 다른 모든 강력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96년 여름에는 여중생, 여고생의 학내출산과 동네사람들에 의한 소년·장성폭행, 유치원 원장에 의한 성추행 등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간 감추거나 덮어왔던 성폭행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와 사태진단등은 많았으나, 남비 물끓듯하던 여론이 수그러든 지금, 우리는 안전하며, 성폭행은 더이상 없는가?

성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없는 현실 속에서 번역된 <나의 몸, 나의 길>은 저자가 8년간 피해자와 가족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성폭행을 신고하거나,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자구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이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적절할 것이라고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우선 성폭행에 관한 그릇된 생각들이 흔히 강간신화라 일컬어지는 것부터 순진한 남자를 악한 여자가 유혹한다는 생각까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벌써 당신은 여태껏 억눌려왔던 관습이나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없이 성을 취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일이며, 성폭행은 성적만족을 위한 행위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하는, 격앙되고 과격한 욕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저자는 성폭행을 성욕에 의한 정욕죄가 아니라 분노의 표현, 즉 폭력죄라고 이야기 한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의 마지막장 '성폭력의 예방'까지 꼼꼼히 읽는다면 린다 레드레이의 <성폭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는 더 만족스럽고 큰 보람을 주는 새로운 생

활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의 함의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정말 멋진 사회 아닌가.

<이갈리아의 딸들>

케르트 브란트베르그/나옥재·염연수·윤지형·이현정 옮김

책의 뒷표지에는 오숙희·김은실 반쪽이 부부(변재란/최정현), 황금 가지, 변영주·서동진의 추천의 변들이 있다. 부분 인용 하자면 -너무나 통쾌했다. 아, 고소해! 너 이래도 모르겠니? 엄기적인 남랑극/여성애겐 풍자 소동 폭소 ... (추천의 글만 봐도 재밌을 것 같나구요?)

역자 후기에도 밝혔듯, 이 소설의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페미니즘의 대안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지금의 이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고 편파적인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깨닫게 해준다. 또한 댄을 해방 운동에 관한 묘사는 여성운동의 역사와 여러가지 쟁점을 꿰뚫어본 것으로 훌륭한 여성학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주절 주절 <이갈리아의 딸들> 칭찬이나 내용 소개나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마디만 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동의한다면 혹은 유쾌해지고 싶다면 이갈리아에 꼭 다녀오시길...

그외 읽어보면 유익할 책들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과학과 사상>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제7호-또 하나의 문화>
<성의 변증법-솔리미스 회이어스톤-꿈빛>
<여자는 왜?-서진영-동북>

동성애는 변태?

성이 정치라
구? 포르노는 강간의 교과서!

생 리 는 부끄러운 것?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너 진짜 hetero(↔homo)냐?
마 돈 나의 sex는 정치다?
동성애 자는 에이즈보균자?
캠 퍼 스 는 안 전 한 가?
수 다 는 쓸 데 없 는 것?

함께 고민해봐요!

자격은? 97과 96학번 누구나

총 여학생회 성정치위원회

전화 260-3614

통신 id(hitel) DGUCHW

성폭력신고센터 소개 지킴이 모집광고

우리학교에 성폭력신고센터가 있데!

교실에서 여중생이 출산을 한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한 동네 소녀가장을 12명의 남성들이 돌
아기면서 성폭행한 사실이 "도덕불감증 사회"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국민학교때 담임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 동창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음을 나중에는 알고 담임을 찾아내려고 노력중
인 여성의 이야기도 있었다.

이화여대 매동제에서의 고대생 난동사건이 있었고, 연세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사건도 있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강간미수사건이 발생했고 고대에서는 한 남학생
이 여학생을 끌어안은 사건도 있었다. 동악에서는 천호동 사창가 앞에서 동문회를 한다는 대자보가 붙었
으며, 95년 등나무 아래서 담배를 피우고있는 여학우를 보고 분노(?)하여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질질 끌고가
다 주위학생들이 이를 말리던 일이 있었다. 96년 어느날 밤 명진관 화장실에서 여학우가 스타킹을 뒤집
어 쓴 농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쉬잇! 이런 비말이야) 96년 여름농활에서 강간미수사건이 발
생했다. 이 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다. "어음이 알려지면 네가 피해를 본다" 이 말이 알려지면 농활
의 의의가 상하지 않겠나? ... 무엇을 위한 농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단지 그 내용이 공개화 되었기에 우리가 알고있는 것이며 아마 이것
외에 더 많은 학우들이 학내에서 아니 이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을 당해왔고, 당하고있고,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의 일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본 적이 없다. 사소한 일이라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드러내면 오히려 여자가 손해라고,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성가증심적으로 사고한다. 법적으로 정의하는 강간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된 경우"이라면 그 의미 안에는 어두운 골목에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뿐 한 여지
가 느꼈을 두려움, 공포, 수치심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아니
의 문제로 결정될 문제인가? 성폭력은 사회전반에 걸친 남근 중심적 사상이 발현되는 수단이다. 강간 뿐
만 아니라 사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뿌리깊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모두가 성폭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남성에게 의해 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는 것이 마땅한 아
닙니다.

분노를 넘어 대안으로!

총 여학생회 신고센터
전화 : 260-3614
통신 id:DGUCHW

"남자선배가 불을 꼬집고 씩 웃으며 지나갈때..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자라면서 봐준다는 놈이 있었다."

"선배면 다아? 어째는 왜 툭툭쳐?"

"우리와 남학우들은 여학우가 있는 곳에서 PK 수술이 어떻다는 등, 건강팬티를 사달라는 등 언어적인 성폭력을 무지 많이 합니다. 이것도 성폭력이겠지요?"

"저희과 교수님 중에는 남학우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반면에 여학우들에게는 또한 너무 후한(특히 여성답고 이쁜 여학우)분이 계십니다.(점수나 기타등등)이를 점수가 잘 나오고 칭찬받아서 좋다하며 마냥 좋아하고 오히려 이를 억이용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폭력이 아닐까요? 남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잘 살아 남게 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그러나 여자애들은 대충대충해도 졸업해 간판만 따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학우 여러분! 점수의 노예가 되지 마시다. 대충대충, '여자니까..'식의 생각 또한 성폭력입니다."

"남자 복학생들이 불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너무 싫다.

왜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내게 언어적 성폭력(뽀뽀해주고 싶다)을 자주 사용하던 사람에게 내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요청하고 자신있게 나가자, 그는 기대(무엇? 여성=수동적=내숭적)에 어긋났던지 내게 학을 때었다고 했다. 놀라고 충격받았던 것일까? 왜 여자는 남자가 상상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거부한다. 나는 개성과 능력을 중시한다!

"솔자리에서 남자선배가 부축을 가장해 피부접촉을 심하게 한다."

-이상 화장실 낙서판에서 발췌-

분노를 넘어서

대안으로!

동약의 여성을 지킬 자킴이를 찾습니다.

연락처 260-3614

총여학생회실(학생회관 1층)

물적이는 여성공간

여성단체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하 여연 - 은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불이익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여성이 참세상의 주인으로 나서는 사회, 일반시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재권리가 증진되고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여연의 활동은 ●여성권의 관련 입법 제개정 활동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 활동 등을 합니다.

☎273-9535



한국 성폭 력상 담소

1991년 4월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소는 성폭력의 피해여성들과 상담 활동을 통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기 위한 활동,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576-7128



한국여성의 전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개원하기 이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한국 께립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자료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2.2%의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한 대답이 여성의 전화 설립의 가장 큰 기반이 되었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담으로 대부분은 습관적이고 주기적인 구타에 시달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내들의 호소로 이루어집니다.

☎269-2962



1987년의 창립원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직 여성들과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민우회에서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주부들의 환경운동, 여성인권운동, 생활협동운동 등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펼칩니다.

☎277-7883



한국여성 민우회

1986년에 문을 연 이후 10년 동안 기

두레방

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과 일반인들에게 지지촌의 문제를 알려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민간단체입니다. 두레방의 프로그램으로는 ●상담 -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공동식사 - 매대춘이 주로 밤에 행해지기 때문에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여성들과 나이가 들어 생계가 막막해진 여성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0351-841-2609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90년 11월 16일 36개 여성단체가 모여 조직되었습니다. 발족 이후 정대협은 지금까지 ●일본정부, 일본국회에 대한 활동 ●아시아 피해국 여성들의 연대활동 ●생존자들의 복지활동 등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포함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냄으로써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합니다.

☎365-4016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